

TRAFFIC RULES AND QUICK TIPS

안전하고 즐거운 드라이브를 위해 알아 두어야 할 것



이것만은 알아 두자! 일본의 교통 규칙

① 좌측통행

일본 도로에서 차량은 좌측 주행이 원칙.

② 우회전 차량은 반드시 대기

원칙적으로 직진이나 좌회전이 우선, 우회전 차량은 맛은편 차량을 통과시킨 다음에 우회전한다.

③ 신호가 빨간색이면 좌회전 차량도 반드시 정지

신호가 빨간색이면 직진 차량은 물론 좌회전 차량도 정지해야 한다.

④ 파란 화살표 신호에 따른다

신호등이 빨간색이라도 파란 화살표 신호가 가리키는 방향으로는 갈 수 있다.

⑤ 항상 제한속도에 주의!

도로 상황에 따라 제한속도가 설정되어 있으므로 속도 규제 표지에 주의하여 제한속도를 준수할 것.

⑥ 추월 금지에 주의

추월 금지 구간에서는 절대로 추월하지 말 것.

⑦ 일시정지 시에는 완전하게 멈춘다.

건널목에서도 반드시 일시정지

일본에서는 일시정지를 엄격하게 지켜야 한다. 완전하게 정차하지 않으면 위반 행위가 된다. 건널목 앞에서도 일시정지한다.

⑧ 전방 신호를 잘 본다

일본에는 세세하게 설정된 특별한 신호기가 설치된 교차로가 많기 때문에 전방 신호에 주의합니다. 예측을 받은 하지 맙시다.

⑨ 알코올이나 약물은 절대로 금지!

「술을 마셨으면 운전할 수 없다.」는 것은 물론 동승자나 음주를 권한 사람도 처벌을 받는다. 약물 사용도 똑같이 엄벌에 처해진다.

⑩ 불법 주차 금지!

일본은 주차위반 단속이 매우 엄격하기 때문에 짧은 시간이라도 반드시 지정된 주차 공간에 주차합시다.

항상 보행자 우선



일본에서는 차량을 운전할 때 언제나 보행자 보호를 우선해서 운전해야 한다. 좌회전 또는 우회전 시에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는 보행자가 있으면 그 앞에서 일시정지하고 보행자가 다 건너가면 출발한다.

야간 주행은 주주의



사람들이 생활하는 마을을 벗어나면 기드랑이 쪽에 어두운 도로가 많다. 보행자나 자전거의 발견에 늦어지거나 악성 동물도 많다. 도시의 밝은 도로와는 다른 위험이 있으므로 특히 주의가 필요하다.

과속에 주의



규슈는 자연 경관이 아름다워 도로 폭이 넓고 길기 때문에 속도를 내기 쉬운 도로가 많다. 특히 고속도로가 적은 도로에서는 차량 시고로도 이어질 수 있으므로 과속은 금물이다.

교차로에서의 사고에 주의



교외에는 교통량이 적고 신호기가 없는 교차로가 많다. 따라서 갑자기 마주쳐 벌어지는 사고가 많고, 사망 사고로 이어지는 경우도 많다. 무조건 제한속도를 지키고 교차로에서는 좌우의 민진을 확인한다.

일본에서 운전할 때의 주의점

① 좌측통행

일본 도로에서 차량은 좌측통행이 원칙, 주행 차선이 2차선인 경우에는 우측 차선에 우회전 차량이 대기하고 있는 경우가 있으므로 우회전할 예정이 없으면 항상 좌측 차선을 주행합시다. 그리고 차선을 변경할 때는 방향지시등으로 후속 차량에 알립시다.

② 우회전 차량은 반드시 대기

원칙적으로 자신이 우회전할 때는 「맞은편 차량」이 우선이다. 맞은편 차량의 직진이나 좌회전을 통과시킨 다음에 출발한다. 일본은 좌회전이 우선, 우회전 우선의 「잉보」 규칙은 없다.

차선과 좌회전, 우회전의 기본 그림



③ 신호가 빨간색이면 좌회전 차량도 반드시 정지

일본에는 전방 신호가 빨간색이라도 좌회전할 수 있는 「좌회전 프리」 도로나 교차로가 거의 없다. 전방 신호가 빨간색이면 직진 차량은 물론 좌회전 차량도 모두 정지해야 한다. 무조건 신호가 파란색이 될 때까지 기다립시다.



④ 파란 화살표 신호에 따른다

원칙적으로 전방 신호등이 빨간색이면 모든 차량은 정지해야 한다. 그러나 신호기 아래 또는 옆에 화살표 신호가 있는 경우에는 지시하는 방향에 대해 갈 수 있다. 우회전 화살표 신호가 가장 일반적이다. 우회전 화살표 신호가 거지면 맞은편 차량에 주의하면서 신속하게 우회전합시다. 이 신호기가 있으면 우회전 전용 차선이 있는 경우가 많다.



⑤ 항상 제한속도에 주의!

일본 도로에서는 제한속도가 시가지에서 30~50km/h, 고속나 간선도로에서 60km/h이다. 고속도로에서는 통상 100km/h지만, 강풍이나 강우 등의 경우에는 50km/h로 제한되는 경우도 있다. 제한속도 표지가 없는 도로나 고속도로라도 전광 표지에 속도 표시가 나와 있지 않은 경우도 있다. 이러한 경우에는 법정속도를 지켜야 한다(일반도로 : 60km/h, 고속도로 100km/h). 항상 제한속도에 주의하면서 안전한 드라이브 여행에 유의합시다.



⑥ 추월 금지에 주의

추월 금지 구간에서는 절대로 추월하지 말 것. 추월 금지 구간으로 지정한 것은 그만큼 위험하기 때문이다. 예를 들면 전방이 나쁘거나 앞에 급커브가 있는 등, 그 나쁜 이유가 있다. 금지 구간을 지나 안전하게 추월할 수 있는 곳까지 기다립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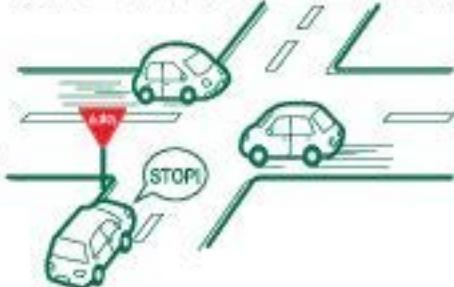




⑦ 일시정지 시에는 완전하게 멈춘다. 건널목에서도 반드시 일시정지

일본은 일시정지 규칙이 매우 엄격한 나라이다. 어중간하게 멈춰서는 안 된다. 차량을 완전히 정지시키고 좌우의 안전을 확인하지 않으면, 멈춘 것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또한 역삼각형 표지는 일본 특유의 표지이므로 확실하게 기억해 둘시다. 이 표지가 있는 도로와 옆으로 교차하는 도로에는 「정지」 표지가 없는 것이 보통. 이것은 옆으로부터 상당한 속도로 달려오는 것을 의미한다. 「정지」를 무시하여 사고 등이 발생하면 「멈추지 않은 채」에 따른 책임이 발생한다. 충분한 주의가 필요하다.

정지 표지가 있는 교차로의 그림



주의해야 할 도로 표지



차량 진입 금지



차량 통행 금지



주차금지



차량 방향 외 진행 금지



일시정지

【건널목에서도 반드시 일시정지!】

건널목 앞에서는 반드시 일시정지한 다음 좌우의 연차 유무와 전방 도로를 보고 안전하게 선로를 지날 수 있는지 확인하고 나서 출발해야 한다. 건널목 건너편이 철제되어 있으면 지날 수 없어 선로상에서 장시간 움직일 수 없는 경우도 있다.



⑧ 전방 신호를 잘 본다 예측출발은 하지 맙시다.

【시차식 신호란?】

기본적으로는 주행 차선의 신호가 빨간색이면 맞은편 차선의 신호도 빨간색이지만, 장소에 따라서는 시간차를 두고 흔집한 쪽 차선만 파란색 신호 시간을 길게 하는 경우가 있다.

【보차분리식 신호란?】

보행자가 많은 시가지 중심부에서는 보행자를 보호하기 위해 보행자와 차량이 교차하지 않도록 보차분리식 신호가 설치되어 있는 곳이 있다. 원칙적으로 차량용 신호가 모두 파란색 신호일 때는 보행자용 신호는 모두 빨간색이다. 이와 반대로 차량용 신호가 모두 빨간색일 때는 보행자용 신호를 모두 파란색으로 하여 보행자 전용으로 한다. 보행자는 차량과 교차하지 않고 안전하게 교차로를 건널 수가 있는 것이다.



보차분리식 신호의 그림



차량은 어느 방향으로부터도 교차로에 들어갈 수 없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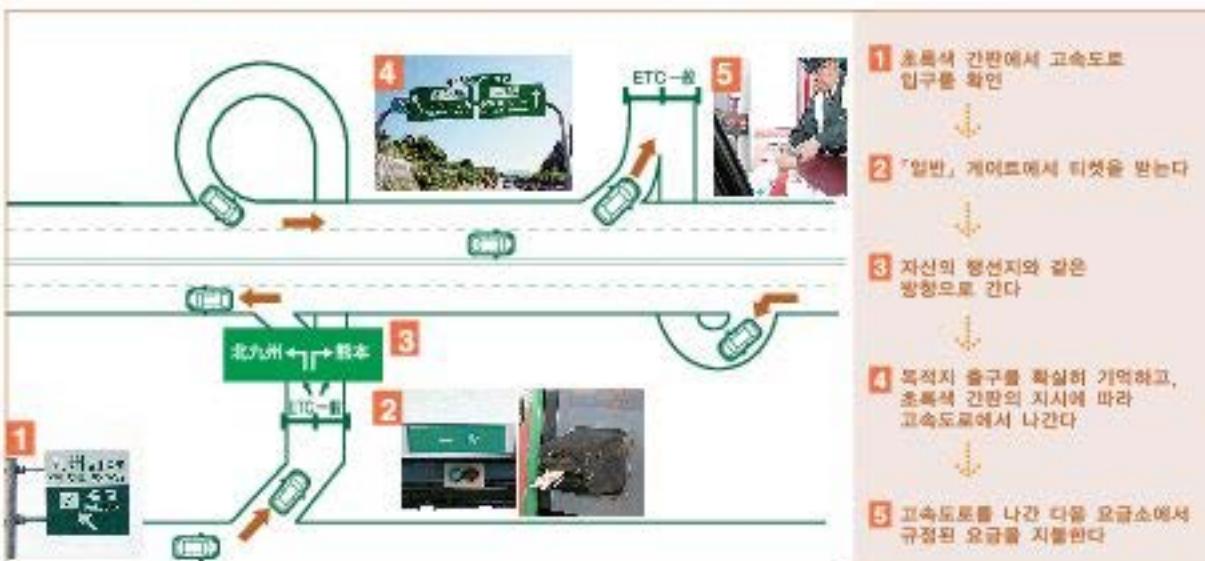
⑨ 알코올이나 약물은 절대로 금지!

술을 마셨으면 운전할 수 없다. 이것은 전세계적인 상식이다. 일본도 같지만 단속이나 법칙은 더 엄격하다. 음주운전검사에서 알코올이 검지되면 취기운전으로 법칙(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게다가 알코올의 영향으로 정신적인 운전을 할 수 없을 우리가 있는 상태(음주운전)라고 인정되면 더욱 무거운 처벌을 받는다. 일본의 경우는 검사를 거부하는 것도 처벌 대상이 된다. 그리고 술을 마시지 않은 동승자에게도 법칙이 있으므로 술을 권한 사람도 처벌 대상이 되는 등, 주변 사람들에게도 영향을 준다. 음주운전은 절대로 하지 맙시다. 또한 일본에서는 대마나 마리화나와 같은 약물 사용이 모두 금지되어 있고, 사용한 경우에는 매우 무거운 처벌이 부과된다. 운전 시에는 물론 일본 체재 시에도 모두 금지다.



고속도로를 이용합시다

① 자신의 현재 위치와 ② 입구 위치 ③ 출구 이름을 사전에 확인한다.



■ 입구는 어디?

「후쿠오카IC」 등, IC(인터체인지)라고 불리는 입구로 들어간다. 일반도로의 도로 간판은 모두 「파란색」이지만, 인터체인지는 모두 「초록색」으로 표시되어 있으므로 초록색 표시를 따라 간다.

九州自動車道
KYUSHU EXPWY

7 福岡
Fukuoka



■ 어느 게이트를 통과하면 좋은가?

입구에는 일반 차선과 ETC 차선이 겸용인 차선이 있다. 당시로부터 ETC 카드를 빌려 차내에 설치된 전용기기에 ETC 카드를 넣은 경우에는 ETC 차선 또는 겸용 차선을 이용할 수 있다. ETC 카드를 빌리지 않은 경우에는 초록색 「일반 차선」으로 들어갈 것.



■ 어느 쪽으로 가면 좋은가?

게이트를 통과하면 2방향으로 길이 나뉘므로 가고 싶은 방향의 차선을 선택해야 한다. 표지는 「도시명」으로 주요 도시나 종점 IC의 위치 관계만은 사전에 체크해 둘시다. 만일 목적한 방향과 반대 방향으로 들어갔어도 침착하게 다음 IC에서 고속도로를 나온 다음 다시 들어갑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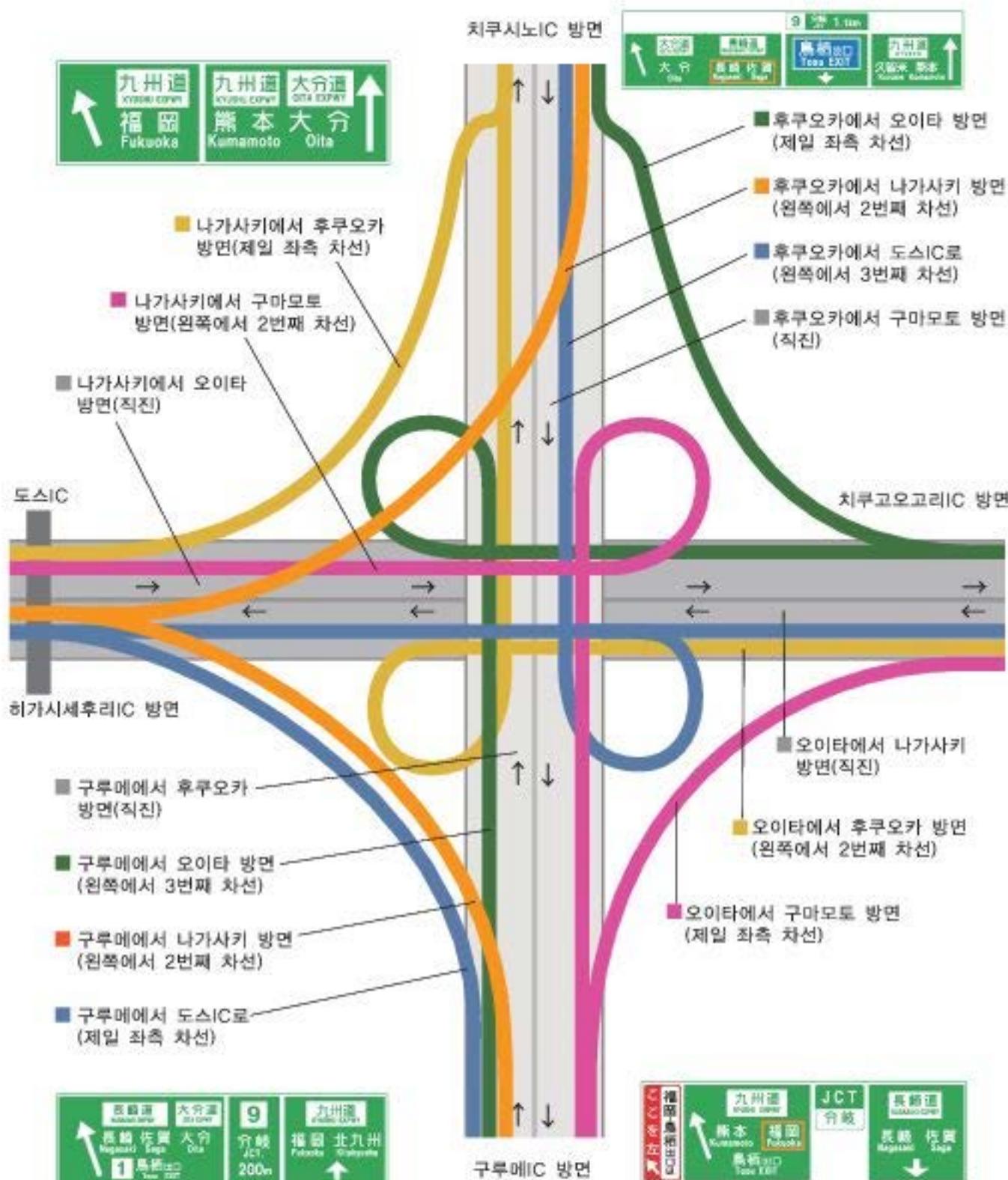


■ 주행 차선을 주행합시다(좌측통행)

주행 2차선인 고속도로에는 「주행 차선」과 「추월 차선」이 있다. 통상은 좌측의 주행 차선을 주행(좌측통행)할 것. 추월할 때는 우측에서 추월하는 것이 일본의 규칙. 일본에서는 이 차선 규칙을 절제하게 지켜야 하기 때문에 추월이 끝나면 천천히 원래 주행 차선으로 돌아갈 것.



규슈 자동차도로의 치쿠시노IC와 구루메IC 사이에 있는 도스JCT는 규슈 자동차도로, 나가사키 자동차도로, 오이타 자동차도로가 만나는 분기점으로, 교통량이 매우 많다. 표시를 보고 목적지에 맞는 진로를 신중하게 선택합시다.



주유소를 이용합시다

일본에서는 주유소를 「가솔린 스탠드」(GA-SO-RIN SU-TAN-DO)라고 한다.
「종류가 다른 기름을 넣는」 트러블이 빈발하고 있으므로 명칭을 확실히
기억합시다. ※약호는 주유소=GS 또는 서비스 스테이션=SS라고도 표기한다.

■ 주유소는 어디에 있나요?

도시 주변이나 비교적 교통량이 많은 간선도로에서는 자주 볼 수 있지만,
도시에서 멀어지거나 교통량이 적은 도로 등에서는 자주 볼 수 없다.
도시 주변에서 주유소가 비교적 많은 곳은 트럭과 같은 대형 차량이
왕래하는 2차선 이상의 도로 등, 도시 지역에서는 24시간 영업하는 곳도
있지만, 교통량이 적은 지방에서는 저녁 6시 이후나 토요일과 일요일에
문을 닫는 주유소도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하다. 「연료가 떨어지면…」이
아니고, 어두워지기 전에 그리고 미리미리 급유하기 바랍니다.

■ 주유소는 크게 2종류

판매원이 상주하여 주문을 받으면 급유해 주는 「풀서비스형」과 스스로 급유해야 하는 「셀프서비스형」의 2종류가 있다. 셀프서비스형이 약간 가격이 저렴하다. 풀서비스형은 「휘발유 종류」와 「양(리터)」 또는 「금액(엔)」을 말하면 되고, 「Full Tank」인 경우에는 「만탄(MAN-TAN)」이라고만 하면 된다. 직원이 급유도 하고 창고 닦는 등 극진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가끔 지도나 화장지와 같은 선물을 받을 수도 있다.

■ 연료 종류는 3종류, 가솔린은 2종류

연료는 「하이오크(고급휘발유)」, 「레귤러(일반휘발유)」, 「게이유(경유)」의 3종류. 대부분의 일본 헌터카는 가솔린
엔진으로 레귤러를 사용한다. 디젤 엔진의 헌터카는 거의 없기 때문에 경유는 절대로 넣지 말 것. 경유를 넣으면
자동차가 움직이지 못하게 된다. 또한 일본의 휘발유는 거의 대부분이 무연휘발유이다.

연료(휘발유)의 종류

*셀프 주유소에서 급유할 때는 종류를 잘못 선택하지
않도록 요주의!

일반적으로 「레귤러」는 옥탄가가 90 전후인
휘발유이고, 「하이오크」는 옥탄가가 98~100이다.
주유소에 따라서는 「하이오크」를 언비 향상이나 엔진
영화 방지, 환경 성능을 높이는 상품으로 「프리미엄」,
「슈퍼」, 「F1」, 「비고」, 「슈퍼매그넘」, 「셀프라」와 같은
독자적인 이름을 사용하고 있다.

이 마크를 찾자…

주요 주유소 체인의 마크



원포인트 어드바이스 노즐 색으로 구분합니다! 레귤러는 「빨간색」

모든 주유소에서 급유
노즐은 레귤러가 「빨간색」,
하이오크가 「노란색」, 경유가
「초록색」으로 통일되어 있다.



영어 표기	台 湾	香 港	日 本
Ultimate unleaded *	98無鉛汽油	高級汽油	ハイオク(HA-I-O-KU)
Unleaded	92無鉛汽油	普通汽油	レギュラー(RE-GYU-RA-A)
Diesel	柴油	柴油	軽油(KE-I-YU)

* 주유소에 따라서는 「Ultimate unleaded」이 「Plus unleaded」, 「Super unleaded」, 「Premium unleaded」라는 상품명으로 불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동차 연료 종류는 급유구의
캡 색으로도 식별할 수 있다.
「레귤러」나 「하이오크」는
검은색 캡, 「경유」는 회색
캡이다.



■ 셀프서비스로 연료를 넣어 봅시다

아래는 일반적인 셀프서비스 허브 중 하나이다. ※주유소마다 시스템이 다른 경우가 있으므로 어디까지나 참고로만 하십시오. 이외에도 금유가 끝난 다음에 계산대에서 점원에게 지불하는 후불식도 있다.



1 금유 펌프 옆에 차를 주차한다

자동차의 금유구가 있는 쪽을 펌프 쪽으로 하여 자동차를 주차한다.
금유구는 사전에 확인해 둍시다. 자동차를 주차하면 엔진을 끈다.



2 요금을 선불로 지불한다

연료 대금을 선불로 지불할 경우에는 「현금」과 「신용카드」를 모두 사용할 수 있다.

(1) 현금…현금을 삽입구에 넣는다

예를 들어 30리터를 넣고 싶은 경우에 5000~6000엔 분의 지폐를 넣으면 금유가 끝난 다음 그 때의 단가×금유량(L)을 계산하여 넣은 금액에서 뺀 거스름돈을 반환구를 통해 반환한다.



(2) 신용카드…카드를 인증한다

슬릿에 카드를 「넣은 다음 바로 꺼내거나」 또는 「위에서 아래로 통과」시키면 카드 정보를 읽는다.



3 종류와 유량을 선택한다

펌프 표시 버튼 「하이오크」, 「레귤러」, 「경유」 중에서 해당 버튼을 손가락으로 누른다. 렌터카의 경우는 대부분 「레귤러」를 선택한다.
유량은 2가지 방법으로 지정할 수 있다. 「10L」, 「20L」, 「30L」…
「50L」에서 적당량을 선택하거나, 「1000엔」, 「2000엔」, 「3000엔」…
「5000엔」에서 적당한 금액을 선택한다. 물론 「Full Tank」를 원할 경우에는 「안단(MAN-TAN)」을 선택할 수가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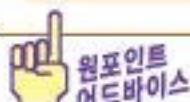
4 금유한다

자동차의 금유구 캡을 열고 금유 펌프의 노즐을 들어 금유구 만족까지 확실히 넣는다. 보통 노즐이 3종류이므로 올바른 종류의 노즐을 선택한다. 종류가 반드시 표기되어 있고, 색으로도 분류되어 있다.
노즐의 그립 레버를 쥐면 연료가 금유된다. 지정한 유량의 금유가 끝나면 자동으로 금유가 정지한다(노즐의 그립 레버를 풀 수 없게 된다).



5 금유 종료

노즐을 원래 위치에 되돌려 놓고 금유구 캡을 닫는다. 펌프 표시부의 취발유 양과 금액을 확인한다. 현금으로 지불한 경우에는 거스름돈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잊지 않도록 주의한다. 현금 지불과 신용카드 지불 모두 영수증이 자동으로 인쇄되어 나온다.



취발유는 위험

당연한 상식이지만, 금유 중에는 담배나 흡기는 엄금이다! 취발유에 인화되면 엄청난 사고가 발생할 수 있다. 또한 정전기도 위험하기 때문에 금유하기 전에 정전기 제거(제거 장치에 터치만 하면 된다)도 잊지 맙시다. 금유 중에는 휴대전화도 사용 불가.



주차장을 이용합시다



■ 유료 주차 미터를 이용합시다

자동차를 잠시 주차할 경우에는 주차 미터를 이용합시다. 노상이므로 비교적 쉽게 찾아 주차하기 쉽다. 오른쪽 표지가 있는 부근의 노상에 주차 공간이 원선으로 표시되어 있다. 요금은 선불제이며 시간이 정해져 있다.

이 마크를 찾자…

[주차 미터]



- 1 자동차를 소정의 위치에 주차한다.

- 2 주차 티켓 발매기에 동전을 투입한다.



- 3 주차 허가증이 나온다.

- 4 허가증을 자동차 앞유리 안쪽에 박에서 보이도록 붙여 둔다.



- 5 허가 종료 시간을 확인한다. 60분이 넘으면 주차위반이 되므로 주의한다.

■ 민간 주차장이나 공공 주차장을 이용합시다

주차장의 요금은 모두 다르다. 백화점이나 쇼핑몰 등에서는 계약 주차장을 설정하여 일정 구매액이 있으면 무료가 되므로 꼭 사전에 체크해 둔다. 요금 체계는 주차장에 따라 모두 다르다. 20분 정도의 단시간부터 몇 시간 주차해도 일률적으로 1일 요금(1000~2000엔 정도)을 받는 곳도 있다. 일반적인 시세는 변화가 있어서 20분 100엔이나 1시간 300~400엔 정도이다. 물론 교외에는 좀 더 저렴한 곳도 있다.

■ 불법 주차로 잡히면?

일본은 주차위반 단속이 매우 엄격하기 때문에 잠깐이라도 반드시 「주차 공간」(정해진 장소)에 주차합니다. 만약 주차위반으로 잡혔을 때는 과태료 : 주정차위반(보통차의 경우) 10,000~18,000엔을 지불해야 한다.



【주차위반 시의 대응】

① 경찰에 연락한다

오른쪽 주차위반 스티커에 기재된 연락처로 신속하게 연락할 것.

② 과태료 지불

경찰에 출두하여 소정의 절차를 거쳐 납부서를 수령. 근처 금융기관에서 과태료를 지불한다. 이 때 영수증을 받을 것.

③ 렌터카 회사에 보고

렌터카 회사에 수속 서류와 영수증을 제시할 것.

여기에는 기재된 전화번호로 연락할 것.



불법 주차는 렌터카 회사로 통지됩니다!

경찰이 불법 주차 스티커를 끌어면 등록번호판을 통해 소유자, 즉 렌터카 회사를 찾아내고 불법 주차 사실을 통지한다. 반항하기 전에 반드시 경찰의 지시에 따라 수속을 마친다.

변환 전까지 주차위반을 처리하지 않은 경우에는 당사가 별도로 정하는 주차위반 벌칙금 「보통차 : 25,000엔, 중대형차 : 30,000엔」을 받는다. 그리고 주차위반 처리도 주차위반 벌칙금도 불가능한 경우에는 경찰, 공안위원회 및 렌터카 협회에 통고한다.



주차금지 여부를 스스로 확인!

주차위반을 하는 외국인이 매우 많다. 렌터카 회사의 조사에 의하면 외국인의 주차위반 건거율은 일본인의 8배에 이른다. 자신의 눈으로 직접 표지·표지를 보고 주차금지 장소인지 아닌지를 반드시 확인할 것.



주차금지 표지

교통사고 트러블이 일어나면



즐거운 여행을 하려고 하는데 자신이 교통사고를 만나리라고는 전혀 생각하지 않을 것이다. 그런데 이것이 제일 큰 걱정거리이기도 하다. 만일의 사태에 대처하는 방법만 알아 두면, 불안도 해소되고, 만일의 경우에 당황하지 않고 대처할 수 있다.

■ 사고를 당하면?

자신이 큰 부상을 입은 대형사고를 당하면 누군가의 도움을 기다릴 수 밖에 없다. 자신이 다른 자동차에 부딪치거나 타인에게 부상을 입히거나 했을 경우가 문제다. 침착하게 대응하는 것이 중요하다. 먼저 2차 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대응하는 것이 중요. 아래 순서는 반드시 기억해 둘시다.

【교통사고 시의 행동】

① 안전 확보

후속 차량의 교통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자동차를 이동시키거나 부상자를 안전한 장소로 이동시키는 등, 주위를 잘 보고 판단합니다.

② 구급차를 부른다 전화번호 119

부상자가 있는 경우에는 구급차를 부릅니다. 기다리고 있는 동안에는 지침 등의 응급 처치가 필요하다.

③ 경찰의 지시에 따른다 전화번호 110

경찰에 연락하여 사고 상황을 자세하게 알린다. 후에 보상 문제 때문에 사고 충돌이 필요하게 되므로 반드시 연락할 것.

④ 렌터카 회사에 연락

그리고 렌터카 회사에 연락하여 그 지시에 따른 것. 보험회사로의 연락이나 자동차 이동 방법 등을 모두 렌터카 회사가 수비한다.

■ 가벼운 사고라도 반드시 보고

자손 사고로 자동차가 주행 가능해도 반드시 렌터카 회사에 보고할 것. 경우에 따라서는 경찰에 신고해야 할 필요가 있다.

■ 110번이나 119번으로 연락 시에 전화로 알려야 할 것

교통사고로 부상자가 00명 있습니다 / 장소는 00, 내 이름은 00입니다 / 연락처는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입니다.

■ 그 자리에서의 합의에는 대응하지 않는다

기벼운 접촉 사고 등이면 상대가 그 자리에서 돈으로 해결을 요구하는 경우도 있지만, 규칙을 모르는 사람이 물리하게 되므로 단호하게 거절하고 렌터카 회사의 지시에 따르는 것이 안전하다.

■ 상대방을 반드시 특정해 둔다

상대방에게 자신의 정보를 알리고 상대방 정보도 알아 두는 것이 좋다. 카메라가 있으면 현장 사진도 찍어 두면 좋다.

- 자신과 상대방의 이름·주소·전화번호
- 자신과 상대방의 연락처 번호



원포인트 어드バイ스 고속도로에서는 「비상 전화」를 사용합시다

고속도로에서의 시고나 고장 시에는 길길에 정차하고 후속 차량에 비상등이나 정지표시판으로 양쪽 안전을 확보한 다음 도로관리자에게 연락한다. 휴대전화가 아닌 「비상 전화」를 사용하면 레스큐에 자동적으로 있는 곳을 알 수 있다. 「비상 전화」는 1km마다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전방이나 후방 500m 이내에서 찾을 수 있다.



자동차보험 등에 대해서



당사 렌터카의 계약 기본요금에는 자동차손해배상책임보험이나 자동차손해보험 포함되어 있다. 사고를 일으켜 자동차나 사람에게 손해를 준 경우, 배상금은 보험의 한도액 범위 내에서 보험회사가 지불한다. 보상 내용은 반드시 빌리기 전에 체크합니다.

부여되는 보험 보상 한도액

대인 보상	1명에 대해 무제한(자동차손해배상책임보험 포함)
대물 보상	1사고에 대해 무제한(면책 5만 엔)
차량 보상	1사고에 대해 시가까지(면책 5만 엔)
탑승자 장해보상	1명에 대해 1,000만 엔까지, 탑승자의 사망에 대해 손해액을 보상



면책이란

면책 금액이란 보험회사가 지불 의무를 지지 않는 금액을 말한다. 즉 당사자인 당신의 부담분인 것이다. 회사에 따라서는 「안심 코스」 등으로 면책 금액도 면제하고 보상액도 고액으로 하고 있는 고급 플랜을 판매하는 곳도 있다. 또한 긴급 시의 로드 서비스나 전화 안내 서비스 등도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안심을 확보하고 싶은 분들께 추천한다.

NOC란 (Non Operation Charge)

만일의 경우에 사고 상대방에 대한 손해배상금은 보험계약의 보상으로 처리할 수 있다. 그러나 차량 손해로 인해 렌터카 회사가 그 자동차를 수리하는 기간에 자동차를 빌려줄 수 없기 때문에 「놓친 이익」은 처리되지 않는다. NOC란 「영업미익보상」을 말한다. 자체 주행이 가능한 경우에는 2만 엔 정도, 자체 주행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5만 엔 정도를 부담해야 한다. 일본에서 렌터카를 이용할 때는 이 규칙을 이해하고 이용해야 한다.



접촉 사고를 내면...

(예) 만일 타인의 자동차에 접촉하여 자신의 자동차와 상대방 자동차 모두가 손해를 입었을 경우(렌터카를 자력으로 주행 불가능한 상태로 반환한 경우), 보험의 대물 보상·차량 보상으로 보상되지만, 각각의 면책이 $5만 + 5만 = 10만$ 엔, 그리고 NOC로서 5만 엔(주행 불가능), 최대 15만 엔이 자기 부담이 된다.

■ 외국인의 렌터카 이용 시 사고 실태

- 익숙함이 위험하다! 여행 전반보다 후반에 많이 발생한다
- 좌회전이나 우회전 후에 반대 차선에 들어간 접촉 사고(일본은 좌측통행)
- 접촉 사고 No1은 주차장에서의 후방 확인 부족
- 경미한 사고라도 경찰에 신고한다



큐슈 및 오키나와 지역을 여행하시는 분들의 안전한 여행이 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주후쿠오카대한민국총영사관

대표전화 : 092-771-0461